

사설

백두의 정신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이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시각 온 겨레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분별로 하여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애국애족의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그 길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는 확고한 통일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의 정신으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었다.

외세에 의하여 강도가 분렬된 때로부터 장장 70년,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조국통일운동이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기운차게 전진하여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변의 통일의지와 철석의 통일신념에 의해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백두의 정신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며 통일의 퇴성을 불러온 판문점에도 어려웠고 조국통일운동발전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에도 비껴있다.

불신과 반목, 대결의 긴긴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격동적인 환희와 사변들을 안아온 6.15자주통일시대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길이 전하고있다.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를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신 웅대한 통일구상에 받들려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었으며 6.15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대화가 도도히 굽이쳐 흐르는 격동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며 온 겨레는 백두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가슴부풀었으며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간직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인사들을 친히 만나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2007년 10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또다시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도 채택발표되었다.

오늘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국통일운동이 시련을 겪을수록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전하는 백두산을 승리의 상징, 희망의 등대로 더

높이 우러르며 백두의 정신으로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백두의 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 높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세계를 더 깊이 체득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아가야 한다.

항일의 나날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백두의 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겨레가 통일위업진군의 길에서 높이 발휘하여야 할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가로막으려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은 날로 더욱 악랄

하게 벌어지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부타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아 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으로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에 떨쳐나설 때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는 활짝 열리게 될것이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의 체제전복에 환장이 된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을 한사코 가로막고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림으로써 반공화국압살야망과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도적으로 폭발국면으로 몰아가면서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적극 편승하

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법한 제의와 겨레의 통일지향에 한사코 역행하고있으며 체제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말로는 《북남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극악한 대결광신자들도 남조선당국이고 빼라살포망동과 비렬한 《인권》모략소동, 추악한 반공화국국제공조늘음에 열을 올리며 팔수에까지 들어찬 《체제통일》야망을 이루 어보려고 발악적으로 날뛰는 자들도 다름아닌 남조선의 친미보수당국이다.

우리의 선의와 아량을 악용하면서 북남대화를 저들의 추악한 목적실현을 위한 흥정물로 삼으려고 어리석게 날뛰고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 남조선당국의 매국배족행위는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활기있게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전제조건》이니, 《일방적주장》이니 하며 공화국의 선의와 통큰 결단을 외곡우롱하지 말아야 하며 대담한 정책전환을 하여 민족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관계개선의 바른 길에 들어서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광기를 부리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계속 역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못할것이다.

력사의 반동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준엄한 철추를 내리는 백두의 칼바람은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삼천리 강토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뜨우려고 발악하는 극악한 반통일세력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가장 참혹한 징벌을 안길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백두산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새해 첫 아침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데 대한 중대립장과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북남관계개선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선군의 강력한 힘, 백두의 칼바람으로 짓부시며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에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조국통일위업,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는 결정적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제 조선민족은 백두의 정신으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모든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대상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강재,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용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주어야 대상건설을 다그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오늘 건설장을 돌아보니 인민군대의 손길이 닿고 인민군군인들의 발자취가 새겨지는 곳마다에서는 당의 구상이 훌륭한 결실로 맺어진다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건설경험이 없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863군부대의 전



투원들이 육아원골조공사를 끝낼수 있는 것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답게 헌신적으로 투쟁한데 있다고 높이 평

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863군부대의 전투원들이 새로운 명령관철을 위해 훈련길에 올라있어 만나지 못하는것이 못내 섭섭하다고

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이 건설장을 돌아보고 대단히 기뻐했으며 전투적인사를 보낸다는것을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인민군대에서 건설력량을 더 투입하여 당창건 7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건설은 태양절까지, 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은 전승절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함으로써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군인건설자들이 강원도의 인민들과 합심하여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원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역세게 키우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실천으로 만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선 로켓트 시험발사를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되어 조선인민군 해군부대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반함선로켓트시험발사를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감시소에서 새로 개발한 반함선로켓트의 전술기술적제원을 료해하시고 시험발사를 보아주시였다.

동해함대장의 사격구령이 떨어지자 로켓트정에서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초정밀화된 반함선로켓트가 발사되였다.

지능화된 반함선로켓트는 안전하게 비행한 후 《적》함선을 정확히 탐색, 식별하여 명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우리가 개발생산하고있는 각종 로켓트들이 적들을 완전

히 제압할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라고 만족하시면서 이번에 적함선집단을 먼거리에서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는 신형반함선로켓트가 개발완성된것은 무장장비들을 최첨단수준에서 지능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이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된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오늘의 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새로운 국방과학기술과제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8 건설국의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8건설국의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 영웅적투쟁을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운 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당의 건설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8건설국의 건설자

들은 선군시대의 영웅들이고 우리 당의 보배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건설전투장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고 하시면서 8건설국의 건설자들이 앞으로도 맡겨진 대상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백두산의 정일봉기슭에는 아름다운 설경속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귀틀집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이다.

인걸지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은 해발높이 2750m로서 천리수해우에 우뚝 솟아있는 산이며 신비롭고 웅장무쌍한 자연의 거창하고도 정교로운 창조물이다.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떠받들어왔다.

그러나 백두산이 진정으로 조선민족의 마음속에 희망의 밝은 빛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운명의 구세주, 전설적영웅을 맞이한 그때부터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두산에서 항일대전을 벌리신 때로부터 백두산은 조선민족에게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운명의 성산, 영웅의 산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주체31(1942)년 2월 16일.

《조선아! 백두광명성이 솟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그날부터 조선민족은 천고밀림의 이 귀틀집을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해줄 희망의 상징으로 여기고 더욱 동경하게 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백두산은 내 고향이다, 백두산은 천지가 있고 나무도 많고 또 아버지원수님께서 왜놈들을 때려눕힌 곳이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연필 깎는 손을 잡으시고 《백두산》이라는 글자를 익혀주시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조선민족의 가슴속에 마음의 고향으로 소중히 자리잡게 된것은 바로 이곳에서 조선의 창창한 앞날, 밝은 미래가 열렸기때문이다.

노루발족이 달린 백두산밀영고향집의 문을 열면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상, 위인상이 한눈에 안겨오는 수수한 방이 나친다.

구름노전이 깔린 방에는 자



겨레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그마한 책상이 있고 그 우엔 나무편총과 나무칼, 나무쌍안경, 쪽무이조선지도가 놓여져 있다.

너무도 작고 소박하기 이룰데 없는 방이지만 여기에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소리와 항일전장의 총포성을 자장가처럼 들으시며 성장하신 장군님의 영웅남아다운 기개가 웅건한 산악처럼 안기여오고 어린 시절부터 열과 정을 다해 사랑하신 삼천리강토가 펼쳐져 있다.

사품쳐 흐르는 장쾌한 대하에도 한방울의 물로 시작된 그 시원이 있고 하늘에 치솟은 아아한 산봉우리도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돌로 시작된다.

한평생 선군으로 공화국을 억척불변의 강력한 성새로 일떠세우신 령장의 배짱과 단력, 용맹과 슬기도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백두산에서 나무편총과 나무칼을 틀어쥐고 키우시었고 겨레와 이 강토를 그처럼 사랑하신 그 열과 정도 장군님께서서는 쪽무이조선지도를 맞추시던 그 나날에 벌써 마음에 안고계시었다.

포연에 절은 군복을 입고 군대밥을 드시며 빨찌산의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첫 시작부터가 령장의 생애였다.

사시장철 흐르는 소백수의 줄기찬 흐름이 그이의 가슴에 백두의 정기로 흘러들었으며 흰눈덮인 백두의 험준산악은 그이께 천만대적도 한손에

거머취고 단숨에 쳐갈기는 역센 기상을 심어주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장애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돌격정신을 이 고향집에서 터득하며 성장하신 장군님이시였기에 그이의 한생엔 시련과 고난이 많았어도 이겨내지 못한 시련과 고난은 하나도 없었다.

그야말로 장군님은 언제나 이기시는 장군이시었다.

돌이켜보면 20세기의 마지막년대인 지난 1990년대는 지구상 곳곳에서 침략과 전쟁의 총포성이 그치지 않고 재앙의 화염이 하늘가를 뒤덮었던 시기였다.

80여개 나라에서 120건의 무장분쟁과 전란이 일어나 600여만명이 목숨을 잃고 약 3억명의 평화적주민들이 피난민의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반도에도 민족의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며 침략전쟁의 검은 구름이 떠돌고있었다.

1993년 2월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측하여 이른바 《핵의혹》을 운운하며 공화국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라는것을 채택케 했으며 일시 중단했던 침략적인 《팁 스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고 20여만의 무력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면서 정세를 각일각 전쟁점점으로

끌어갔다.

과연 조선은 어떻게 될것인가. 세계가 동방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의 세찬 칼바람으로 적대세력들의 압살의 광풍을 단호히 쳐갈기시었다.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되고 자위적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한다는 공화국 정부성명이 울려 퍼졌다.

세계의 여론은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터친다 해도 조선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할 수는 없다고 했으며 미국은 혼비백산하여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특별사찰》소동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장군님은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천품으로 지니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린시절 백두산밀영고향집에서 이것은 함경북도이고 저것은 전라남도이라고, 이 모든것을 다 맞추면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가르쳐주시던 어머니의 음성에 맞춰 13개의 쪽무이로 조선지도를 만들곤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사랑하는 조국의 표상을 새겨준 쪽무이 지도.

밀영의 밤 등잔불아래에서 쪽무이지도를 맞추시던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새기시였기에 장군님의 겨레사랑, 삼천리강토에 대한 사랑은 그토록 열렬하고 남다른것이였다.

그 나날 장군님께서 하나하나 맞추어가시던 조선의 모습, 백두의 산줄기를 뚫아 군사노릇을 하시면서 나무쌍안경으로 굽어보시던 조선의 모습은 하나된 삼천리였다.

13도로 나뉜 그 한조각 한조각이 장군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살결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땅이였다.

하기에 장군님께서서는 생애의 나날 하나로 된 조국, 하나로 된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되고있는 민족분열을 단호히 끝장내실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무르익히시며 조국통일의 대용단을 내리신것도 바로 다름아닌 13도 조선지도를 맞추시며 조국과 겨레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던 그 백두산이였다.

통일된 조국에서 한 형제, 한 동포로 살려는 겨레의 녀원, 겨레의 리상은 이미 항일혈전의 그 나날에 백두밀영고향집에서 자라신 위대한 장군님의 꿈이였고 열렬한 지향이였다.

민족의 창창한 앞날이 열리고 통일조선의 밝은 미래를 펼쳐준 백두산밀영고향집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마음의 고향이다.

오늘도 백두산밀영고향집으

로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물론이고 남녘의 각계층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고향집의 트랙은 작아도 조선민족이 다 찾아오는 세상에서 제일 넓은 트랙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세출의 성인으로서 성장하신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천고밀림의 이 소박한 귀틀집에서 탄생하신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의 성인이라는 긍지를 한껏 느끼고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

의 산, 혁명의 성산이라고 하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정신적기둥으로 삼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우리 겨레의 영원한 정신적기둥이다.

그 성스러운 고향집에는 겨레누구나 소중히 간직해야 할 자주의 넋이 있고 선군의 뜻과 기상이 어려있으며 민족단합과 통일의 용기가 비껴여있다. 고난속에서도 웃으며 미래를 마중가는 힘과 용기도 고향집트락에서부터 솟아나오고 최후승리의 방략과 신념과 의지도 백두의 칼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데 안겨주고있다.

백두의 성스러운 고향집을 마음에 새기면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아침도 바로 여기 백두산에서, 정일봉 높이 솟아 빛나는 백두산밀영의 고향집트락에서부터 밝아온다.

우리 겨레는 앞으로도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언제나 가슴에 소중히 안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온갖 장애와 난관을 맞받아나가면서 통일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 이 땅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사무치는 그리움 꽃에 담아 안고 광명성절 이 아침 만수대언덕에 오르니 환하게 안겨오는 장군님 영상 하늘땅 가득 눈부시여라

한평생 우리 겨레 통일을 위해 천만헌신 천만고생 다 하시고도 그 심혈 그 로고는 다 잊으신듯 장군님 밝은 미소 짓고계시니 더더욱 눈물로 젖는 우리의 마음

말해보자, 겨레여 장군님 한평생 그 해와 달들에 힘겨운 날 낫은 날 그리도 많았던것은 시련과 난관 그리도 많았던것은 이 나라의 분열 찢겨진 겨레의 고통으로 더하지 않았거나

허나 그 모든 시련과 난관 웃음으로 헤쳐 오신 아버지장군님 그이는 불어치는 분렬의 광풍 백두의 칼바람으로 쳐갈기시며 통일의 길 곳곳이 걸어오신 백두산의 아들!

(시) 장군님은 백두산에 계신다

김 송 립

우러러 만수대언덕에 서계시는 그이 오늘도 백두산마루에 서계시는데 거세찬 눈보라에 야전복자락 날리시며 백두에서 하시던 그날의 음성 오늘도 귀전에 울려와라

—나는그어떤 큰구상을 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백두산에 가군 합니다

아, 백두산 백두산 멈춤이 없이 좌절이 없이 험준산악 휘감으며 천리수해로 칼바람 내뿜치는 조선의 성산

이 성산에서 우리 장군님 장장 이어지는 분렬세월 겨레의 가슴에 응어리진 아픔과 고통

기어이 끝장내실 통일의 웅대한 구상 무르익히셨거나

자주나 예속이나 통일이나 분렬이나 엄숙한 력사의 물음앞에 백두와 심장의 이야기 나누신 장군님 결연히 내리신 통일의 대용단 이어

그렇게 삼천리에 밝아왔다 반통일의 도전 과감히 밀어내며 분렬의 장막 걷어내며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새 시대가

얼마나 환희로왔거나 그얼마나 감격으로 설레었거나 겨레의 가슴에서 피눈물 가져주고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통일의 대하 굽이쳐흐른 우리 민족끼리의 그 시대는

대결과 불신으로 싸늘했던 그 가슴을 열고 마음과 뜻을 합쳤거나

통일노래 통일함성 함께 리치며 은 강토가 자주통일열기로 끓었노라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그 길로 겨레의 따뜻한 정 오가고 통일기 펄럭이는 하늘아래 우리 겨레 통일세월 새기여 가던 잊지 못할 6.15시대여

아느냐, 겨레여 이 땅에 피어나던 통일의 봄 화원 장군님 오르셨던 백두산 그 백두산의 눈보라가 피운 화원인줄 이 땅에 불어치던 통일의 열풍 백두의 칼바람이 안아온 열풍인줄

백두산에 오르시여 우리 장군님 통일의 구상 펼치셨기에 이 강토에 6.15시대가 열리고

화해와 단합만이 민족의 살 길임을 겨레는 온몸으로 절감하였나니

백두에 오르시여 6.15통일시대 삼천리에 펼쳐주시고 그날의 백두산정신으로 6.15를 가로막는 반통일의 도전이 땅에 불어치는 전쟁의 불구름도 파 감히 짓부셔 버리신 김정일장군님

백두산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장군님 통일의 한생 장군님 애국애족의 한생 그이는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백두산의 모습으로 새겨져있어라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그이 한생의 뜻 한생의 녀원 조국통일! 그 위업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줄기차게 이땅에 흐르고흐른다

겨레는 보았어라 북남관계에서 대 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북남관계의 새 력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신 원수님 모습

분렬 70년력사를 끝장내실 백두의 산악같은 그이의 단호한 의지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자고 온 겨레를 부르신 그이의 불같은 호소여

백두의 정신 백두의 기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 이 땅우에 통일의 새 아침 안아 오시려니 그날을 그려보시는가 장군님 환한 미소짓고 계신다

오, 원수님 따라 자주통일의 대통령로 힘차게 나아가는

장엄한 대오 굽어보시며 우리 장군님 겨레와 함께 계신다 백두산에 계신다

선군은 민족의 운명이고 존엄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뜨겁게 분출하는 광명성절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아버지이신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위대한 업적을 돌이켜보며 그이의 영생을 축원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대하로 끓어오르고있다.

장군님을 생각하면 선군을 생각하게 된다. 선군은 그이께서 인류정치사에서 처음 내놓으신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며 선군을 떠나 오늘의 조선을 생각할수 없다.

선군은 장군님의 평생의 정치신조였고 령도방식이고 혁명실천이었다.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남기신 가장 고귀한 유산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갖은 책동을 다해도 불순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있는것은 선군으로 다져진 공화국의 위력이 강하기때문이다.

선군은 민족의 존엄이고 운명이다.

총대의 강약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고 교훈이

다. 고금동서에 힘이 약해 망한 나라는 있어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봐도 그렇다. 지난 세기 1920년대에 라운규에 의해 창작되어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보급된 영화 《아리랑》에 형성된 황막한 사막에서 물을 찾는 나그네들의 가련한 처지는 그대로 일제식민지 통치하의 칼부림속에서 국권과 생존권을 잃은 비참한 우리 인민의 형상이며 세계가 본 약소민족의 처량한 모습이였다. 몇해전에 우리 대학에서 류학한 강수옥, 남 이리나, 주은철 동포들도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락엽처럼 흩날리며 낫설고 물설은 까자호스판이나 우즈베기스판과 같은 타향에 정착한 망국민의 후손들이다. 그들의 선친들처럼 만주 땅에서 백설처럼 깔리고 원동의 어촌부락과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모래알처럼 뿌려지고 징용, 징병의 마수에 얽매여 일본땅에서 갖은 고역과 학

대를 치르어야 했던 조선민족이었다.

온 강도가 외세의 군화발에 짓이겨지고 민족의 운명이 지리멸렬되던 암흑의 세월을 끝장내고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온것은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총대였다.

에나 지금이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는 그대로다.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있고 대륙과 대양을 이어주는 반도로 되어있다. 그래서 조선반도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이르러 이 지역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화하였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타프트-가즈라협정》에 따른 미국의 묵인비호아래 일본이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미국이 8.15이후 남조선을 강점하고 오늘도 북침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것은 전조선 반도를 지배하여 세계제국전략을 실현하려는 목적에서이다. 그 전략적목적으로부터 미국은 7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극동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만들었다. 알려진데 의하면 세계의 군사평론가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이 붙는다면 지구상에서 20조US\$의 경제손실과 500여개의 큰 도시가 파괴되고 10억이상의 희생과 전지구적인 사막화라는 어마어마한 4대피해를 가져올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와 현세기초에 있는 지역전쟁, 국부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두차례나 황폐화된 이라크나 78일간이나 폭격세례를 당한 이전 유고슬라비아, 2개월간의 공격을 받은 아프가니스탄의 참화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선반도에서는 세번째 세계대전이나 지역전쟁도 발발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나라는 막강한 자

위의 핵억제력을 가졌고 미국이 덤벼들면 대양 건너 본토도 타격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보유하고있다. 이미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대결정책과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상용 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겨레의 갈망을 현실로 이루어놓을수 있는 든든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준것이 조선의 선군이다.

우리 민족을 미국의 핵위협을 당하던 민족으로부터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가진 민족으로 그 존엄을 빛내주신 장군님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선군으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여 자주민족의 영원한 존엄과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으신 장군님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

에 국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한치의 드림도 없이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선군은 민족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이라고 하시였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고 하시며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에 의해 공화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

오만무례하고 파렴치한 적대세력의 끈질기고 무분별한 도전을 물리치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선군은 우리 민족의 존엄이고 운명이며 영원한 미래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조선은 자위의 핵보검을 들어쥐고 민족운명수호의 한길로 줄기차게 나아갈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용부

흔히 사람들은 6.15시대를 우리 민족끼리시대라고 부른다.

바로 이 시대에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의 새로운 력사를 썼다.

조선반도의 력사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전환적국면으로 바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결코 저절로 태어난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에국경론속에 태어난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리념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립장이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통일하며 그를 위해 남조선당자들이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동족과 함께 힘을 합칠때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반만년 오랜 세월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돌로 갈라져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외세가 가져다준 참혹한 비극이다. 침략적인 외세는 반만년동안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을 돌로 갈라놓은것도 모자라 북남관계 개선과 우리 민족의 통일 위업수행에 갖은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며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국이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가로막으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은 오직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전쟁

위인의 통일에국경론과 우리 민족끼리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을 단호히 제압하시였으며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철의 의지, 통근 결단을 내리시고 력사적인 2000년 북남수뇌상봉도 안아오시였다.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는 평양상봉의 나날에 장군님께서 민족 자주정신이 구현된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였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에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합의 숭고한 뜻과 경륜이 깃들어있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전 체 조선민족이고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투쟁해야 동 일의 넓은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어린시절에 벌써 하나에 하나를 합치면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된다는 단합의 철리를 밝히시여 어른들도 깜짝 놀라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민족대단결리념을 지니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기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조선반도에 불신과 대결의 어두운 구름이 짙어갈 때에도 그이께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천명하시여 통일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민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호소에 빼라살로망동으로 도전하고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극대화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비렬한 행

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앞길에 엄혹한 난국이 조성될수록 우리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숭고한 뜻을 더 깊이 새기고 그 리념에 받들려 민족단합의 열풍이 휘몰아쳤던 6.15시대를 끝없이 그리워하면서 통일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에 벌려나감으로써 해에 자주통일의 대토를 반드시 열어놓고야말 것이다.

김현일

우리 민족끼리에 이 땅의 자주도 있고 평화와 통일도 있다는것은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의 현실을 통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지금 자주통일로 향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대 행진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으려는 내외분렬주의 세력의 책동은 더욱 발악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호소에 빼라살로망동으로 도전하고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극대화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비렬한 행

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앞길에 엄혹한 난국이 조성될수록 우리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숭고한 뜻을 더 깊이 새기고 그 리념에 받들려 민족단합의 열풍이 휘몰아쳤던 6.15시대를 끝없이 그리워하면서 통일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에 벌려나감으로써 해에 자주통일의 대토를 반드시 열어놓고야말 것이다.

김현일

인민이 바라다면

나라를 이루는 근본은 인민이며 국가는 인민들의 창조적로동과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는 인민을 중심에 놓는 정치라야 옳은 정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세계정치사를 돌아보면 정치를 주로 다스리는 수단으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통치방식으로만 여겨왔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회주의정치의 기본원리로 내세우시고 한 평생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그의 인민위천의 사상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쫓아내기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의 사상과 령도, 품모의 근본핵이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신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폭과 깊이를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다.

자신은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

함!》이라는 구호도 내 놓으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중심한 힘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

어느해인가 그이께서 식료가공공업부문 협의회를 조직하셨을 때의 일이다. 긴장한 자금사정으로 어느 한 공장건설을 좀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해당 부문 일군들의 의향을 아신 그이께서는 물론 공장을 하나 짓자면 타산을 해 봐야 한다, 그러나 타산을 할 때가 따로 있지 아무때나 수관알부터 먼저 튀기는 말아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나의 산수이고 계산방법이라고 하시였다.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은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랴도 해 내신 장군님의 유일한 계산방법이였고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신 그의 숭고한 인민관이였다.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신 인민의 아버지, 사랑의 화신이시다.

나는 우리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자이라고 하시며 그토록 인민을 믿고 사랑하신 장군님이시다. 참으로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다 합치면 오직 인민뿐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백두산은 강성번영의 봄을 불러 태동한다

흥하는 조국의 모습은 날마다 청신한 기운을 안겨주며 삶의 회열을 한껏 북돋아준다.

남녘의 차디찬 감방에서 수십년세월 원수와 맞서싸우며 신념과 의지로 받아들여온 조국이기에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을 눈곱이 젖도록 우러르며 지나온 인생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힘찬 보폭을 내디딘 조국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으로 천만군민을 부르며 높뛰는 백두의 정신을 온넋으로 새겨안을수록 강성번영의 봄맛이를 하는 심정으로 가슴은 마냥 부풀어오른다.

* * *

백두산, 불러 성스러운 민족의 성산에 내가 처음 오른것은 조국의 품에 안긴 이듬해 9월이었다.

계절은 가을이라 만산은 단풍으로 물들었지만 백두산은 벌써 서리를 뿜으며 눈보라처럼 절을 부르고있었다.

질은 운무를 퍼휘둘러며 신비를 머금은 자태를 드러내보이던 백두산은 금시 쏟아지는 햇빛에 일만산악을 거느린 장엄하고 우람한 그 용자를 도도히 하며 천하제일장관을 펼쳐놓았다.

만세의 함성이 절로 터져 울랐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들었다.

얼마나 오르고싶던 백두산인가.

이날을 마중해 얼마나 험난한 인생역경을 헤쳐왔던가.

승리자의 감격이 북받쳐올수록 백두산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신념을 지켜싸우던 날들이 다시금 밝혀왔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살아가듯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신념과 의지가 뿌리내린 구체적인 생활바탕은 각이하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백두산을 우러르며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백두산을 우러르며 수령님을 한성토록 따르고 받들 신념의 기둥을 굳게 세웠다는 바로 그것이다.

망국의 그 세월 백두산에서 삼도왜적을 삼대베듯 쓸어놓히시며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는 빨찌산 김대장전설은 내가 사는 남쪽땅 한끝까지 전해지며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흠모심을 강렬히 분출시켰다.

하기에 가렐처럼했던 조국해방전쟁의 그 날날 15살나이에 총을 잡고 지리산인민유격대에 들어간 나는 원수격멸의 불을 뿜으며 달리는 산밭을 백두의 준령으로 여기고 항일의 투사들처럼 빨찌산으로 불리우며 싸우는 행복감에 가슴설레이곤 하였다.

인간의 생명을 토막토막 앗아가는 참혹한 우중고초를 겪

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혁명적신념을 지켜올수 있는것은 마음속에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투쟁하였기때문이다.

한해 또 한해 우중년륜이 덧쌓일수록 항일혈전의 수만리길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풍상고초의 력사가 더욱 뜨겁게 어려왔고 항일선렬들의 모습이 세월의 흐름에도 변색을 모르는 군상마냥 빛을 뿌리며 온넋을 틀어잡곤 하였다.

지동치듯 물아치는 눈보라, 원수들과의 피어린 결전, 사신의 고비를 헤쳐넘으며 조국으로 조국으로 진군하는 불패의 대오, 그 대오앞에 기운차게 나뭇기는 붉은기...

한두해도 아닌 장장 20여성상을 하루와 같이 원수와 싸우며 증첩되는 시련도 많았고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도 컸건만 불굴의 신념으로 역경을 쳐물어내며 조국해방의 봄을 불러온 항일의 선렬들.

그 필승의 신념과 기개는 원수와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투지를 심어주었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참으로 옥중투쟁의 나날은 백두의 정신이 온넋을 불태워주며 신념과 의지를 지켜 싸우도록 고무해주고 이끌어준 투쟁의 나날이었다.

어찌 나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백두산이 있었기에 신념을 지켜 싸울수 있었다고, 백두산이 있어 승리자가 될수 있었다고 터치는 심장의 고백이 백두의 부석을 안고 흐느끼고 천지의 푸른 물을 꽃보라마냥 뿌리며 울고웃는 비전향장기수들 모두의 모습에 비껴있었다.

멀리서 우러른 백두산도 위대하였지만 가까이에서 우러르는 백두산은 더욱 숭엄한 진리를 발산하며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으로 우러르며 사는 민족의 긍지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 《백두산을 안고살자.》, 《백두산인민에겐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방선초소들과 사회주의대건설장소에서, 인민들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조국땅 방방곡곡 어디서나 이런 신념의 메아리를 들을수 있었다.

백두산과 더불어 끓어오르는 격동적인 시대상을 목격하며 지나온 투쟁의 나날을 더욱 긍지높이 돌이켜볼수록 매혹과 우러름의 절정에서 태양처럼 빛을 뿌리는 절세의 위인께서 계시으니 그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봄은 봄마다, 풀은 풀마다 어버이수령님의 전설같은 항일영웅사가 수놓아져있는 백두성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고 백두의 칼바람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끝없이 불타오르며 무궁토록 번영할 우리 조국의 천만년

미래를 확고히 기약해준 대운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자주 오르시었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 굳이 눈보라가 울부짖는 날을 택하시어 백두산에 오르신적이 있었다고 한다.

동행하던 일꾼들이 날씨가 좋은 때에 백두산에 올라가실것을 간청드릴 때 장군님께서 자신께서 왜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지 아는지,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떤 간고한 시련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마음속으로나마 더 깊이 체득해보기 위해서라고 하시며 백두산의 눈보라를 앞장에서 헤쳐나가시었다고 한다.

참으로 그날의 장군님의 모습은 세월의 언덕넘어 우리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뜨겁게 새겨지며 백두산이 안고있는 숭고한 정신적높이와 그 무게를 절감하게 하고있다.

민족의 기상으로 겨레의 넋을 불러일으키고 왜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백두산호랑이의 따오소리, 적진을 들부시며 용기백배 나아가던 항일투사들의 승리의 만세소리, 빨찌산군마들의 호기찬 말발굽소리...

만산을 뚫고나가는 투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기개와 열정, 오직 혁명에 살고 투쟁에 살도록 이끌어주는 고귀한 정신적량식이 다름아닌 여기에 있기에 장군님께서 그토록 백두산을 사랑하시며 찾기도 찾으시었다.

백두가 낳은 천출위인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어 조국은 백두산강국으로 위용떨치고 백두의 혁명정신은 민족정신의 근본으로 끝없이 높뛰며 승리에서 승리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 아닌가.

력사를 전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쳐가는 내 조국의 빛나는 승리의 장들은 백두산과 잇닿아있었다.

반공화국암살소동에 광분하는 미국을 비롯한 력사의 반동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강타하며 《광명성》 그 이름과 더불어 우주로 솟구쳐오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들, 원수들이 《제재》를 부르짖을 때 황홀한 축포야회로 선군승리를 경축하고 또다시 핵시험으로 승전고를 부른 장쾌한 사변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이 만찬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임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인 화폭으로 깨우쳐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이 《붕괴》설을 떠들면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미증유의 난국을 돌파하며 산악같이 일어나 부흥의 만년터전을 다지는 불사신같은 조국의 모습은 백두의 혁명정신은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임을 력사의 성벽에 억척불변의 진리로 다시금 아로새겼다.

백두산이 결심하면 사변은 이루어졌다.

온 겨레의 심장을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구어준 6.15시대 백두에서 밝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 3월 백두산에 가셨을 때의 일을 회고하시며 나는 그 어떤 큰 구상을 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늘 백두산에 가군 한다고,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피어린 항일대전을 돌이켜보고 온 나라에 떠받들려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노라면 통이 큰 작전과 구상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신심과 용기도 생기곤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이렇듯 크나큰 용지를 안으시고 백두산을 또다시 찾아오신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발자취가 있어 얼마나 위대한 사변이 펼쳐졌던가.

민족분열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었다.

우리 민족끼리를 진수로 하는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자주통일시대가 환희롭게 펼쳐졌다.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급전환되었다.

수많은 통일사절들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끊없이 굽이쳐올랐다.

력사적인 6.15선언은 10.4선언과 이어져 더 큰 메아리로 세상을 진감시켰다.

그 나날 백두산정에 올라 떠오르는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며 만세의 함성도 터치고 백두산명령고향집에서 통일조국의 새봄을 축복하는 교향악도 심장으로 들어보고 혁명전적지들에 어린 항일선렬들의 숭고한 뜻, 구호나무들에 높뛰는 맥박을 온넋으로 새기며 남녘의 겨레들이, 해외동포들이 쏟은 진정은 무엇이었던가.

백두산에 오르면 통일이 보인다.

그 마음에 받들려 천지의 푸른 물을 정히 담아 한나산 백록담의 물과 합수하는 화폭도 펼쳐고 서울 한복판에서 《백두산사진전》도 성황리에 개최하며 백두산통일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지난해 8.15를 맞으며 백두산정에 올라 장엄한 출정식을 가진 《로씨야-조선반도중단자동차행진단》성원들도 《백두산의 넋과 정신을 안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리겠다.》고 격정을 터치었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백두의 넋을 지니고 승승장구해온 공화국의 자랑스런 력사,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전하며 지금도 백두밀림은 파도쳐 설레이리라.

참으로 그이는 노래에도 있듯이 백두산 높이 솟아 기다린 은인, 천지물 흙내려 맞이한 은인, 백두의 기상으로 자주시대의 봄노을을 펼쳐주

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었다.

오늘은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시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으로 우리 천만군민과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지난해 10월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대업을 기어이 이룩하실 철의 의지를 힘있게 천명하시었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고,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버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마스한 바람이지만 혁명의 변절자, 배신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고, 우리는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TV에서 그날 백두산에 오르신 우리 원수님의 모습을 뵈움은 순간 막 힘이 솟구침을 억제할수 없었다.

희뵐한 하늘을 떠이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백두산의 정점 장군봉에 거연히 서서서 천하를 굽어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세찬 칼바람이 우박같은 얼음덩이들을 사정없이 날려보내고 산정에 휘뿌려대어 한치않도 분간하기 어려운 대자연의 장쾌한 광경을 부감하시며 그이께서는 태양의 미소를 지으신다. 아, 얼마나 매혹적이고 우러르고 또 우러르고싶은 위대한 태양의 모습인가.

싸우는 조선, 승리하는 조선을 알려면 그 불멸의 화폭에서 뿜어나오는 위대한 진리를 새겨안아야 한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멸적의 불을 지피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으로 어려오고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단호히 선언하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힘있게 이어가시던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으로 어려오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앞에서 세계는 선군조선을 이끄는 역센 힘에 대하여, 조선이 나갈 길에 대하여 다시한번 푹푹히 새겼을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오바마가 《붕괴》니,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것》이라느니 하며 떠들어대고 남조선당국이 이에 맞장구를 치며 똑같은 나발을 불어대고있다니 이것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항일빨찌산식을 기가 질려 《창해일숙》을 외워대던 일본사무라이족속들, 《3. 3. 3붕괴설》을 내뿜리며 허황한 망상에 들떠있던 어제날의 정신병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제죽기를 재촉하며 어리석게 놀아대는 력사의 추물들에게 철추를 내리며 백두의 칼바

람은 돌풍이 되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짓어대는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단호히 공언하시고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어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의 칼바람 불어치는 곳에서 원수들의 온갖 악랄하고 비렬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산산이 부서져나가고있으며 선군승리의 개가는 더욱 힘차게 터져나오고있다.

침략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머리우를 떠돌고 비렬한 제재의 광풍이 몰아치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창조와 건설의 동음이 천지를 진동하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불과 몇해사이에 창천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평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현대적건축물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는 희한한 광경, 백두의 칼바람은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기적과 승리의 바람으로 폭풍치고있다.

올해 우리 조국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힌 새해신년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여주시며 강성번영으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켜주시었다.

우리 민족이 천추만대에 귀중히 간직하여야 할 정신적자양을 끝없이 뿌려주며 백두산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혁명의 성산으로 더욱 높이 솟아 빛나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를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선군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로 찬연히 빛을 뿌리는 백두산이 강성번영의 새봄을 불러 태동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천하를 뒤흔들며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로 향해가는 우리 천만군민을 백두산은 끝없이 축복해주고있다.

글을 마감하면서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간직한 삶의 진리를 되새겨본다.

백두산을 알면 충신이 되고 백두산을 났으면 세상도 얻으리라.

비전향장기수 고평 인

장군님의 뜻과 유훈대로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판에 넘쳐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유훈을 변함없이 지켜간다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그 길에서 반드시 맞이하게 될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있다.

돌아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의 바다에서 몸부림치던 인민들이 좌절을 모르고 일떠설수 있었던것은 자기들을 따듯이 품에 안아 이끌어줄 위대한 령도자가 계시기때문이었다.

지금도 세상사람들은 2012년 새해의 첫 아침 온 세계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조선이 어느 길로 나아갈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있던 때에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거룩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잊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곧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대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바로 이어가시려는 천출위인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재도, 동서부의 수많은 인민군초소와 고지들에 현지시찰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호히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

필승의 대오로, 승리의 력사와 전통만을 새겨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 하기에 로씨야신문 《빠트리오뜨》는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령도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전승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썼다.

사회주의강성국가에서 인민들이 만복을 누리게 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이었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온 나라를 주름잡으시며 강성부흥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과 비날론섬유생산,

CNC기계공업의 최첨단들과, 온 나라에 뻗어간 자연호름식물길과 축산기지, 양어기지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것은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그 귀중한 씨앗들이 알찬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불과 몇해사이에 창천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현대적건축물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일

떠서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다.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과 10월8일공장과 같이 식료공장과 산업시설을 대표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일떠서고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무인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장군님 여러차례 다녀가신 천리마타일공장이 주체가철저히 선 공장, 수자화된 공장으로서 전변되었다면 천지운할 유공장과 같이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되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된 단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이 경이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유훈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념을 실현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고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되고 번영하는 통일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계시여 장군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민족의 강성부흥과 조국통일 위업은 반드시 이룩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원산구두공장에서



금갑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마식령스키장에서



평양시버섯공장에서



누가 말했는가. 감격과 흥분으로 심장이 뛸지어던 정결고 놀라지는 않는다. 정말이지 날마다 변모되어가는 놀랄만 한 공화국의 모습을 두고 누구도 놀라와하지 않는다. 이제는 단 몇달만의 천지개벽이 레사로운 일로 되어있기때문일것이다.

단상

내가 찾은 현대적인 공장건물과 깨끗한 구내는 맵시있고 질 좋은 구두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올 래일을 그려보게 했다. 걸만 보아도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이 최상의 수준일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생산자들이 입버릇처럼 위우는 로동은 노래이고 기쁨이라는 노래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사출작업반, 갑피직장, 제화직장을 비롯한 생산현장과 갖가지 맵시있는 신발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간혹 보면 하던이 공장의 신발들이 이처럼 가지수가 많고 색깔이 다양

한줄은 미처 몰랐기때문이다. 하지만 나를 더욱더 놀라게 한것은 공장에 찾아오신 원수님께서 신발의 무게까지 계량해보시었다는 생산자들의 말이였다.

신발의 무게! 순간 생전에 이 공장을 찾으시여 한켠레를 만들어도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구두창을 경량화하여 인민

신발의 무게

들이 더 가볍고 질 좋은 신발을 신고다니게 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모습이 안겨왔고 그이의 가르치심이 깃든 구두의 무게를 가늠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손길에 마음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가벼우면서도 질 좋은 신을 요구한다. 수요자들의 기호와 요구를 헤아리시여 원수님께서서는 대뜸 신의 무게를 알아보시었고 그 무게에서 구매자들의 편리를 집착하시었고 사용자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기쁨

을 느끼시었던것이다. 그이께 있어서 신발의 무게는 단지 그람수에 한한것이 아니였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재는 애민현신의 척도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에 가시여도 인민들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시었고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치들을 찾으시여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부터 먼저 물으시는것이다.

모든것을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실천은 언제나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것이기에 신발의 무게도 소홀히 하지 않은것이다.

신발의 무게는 더 가벼워질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더욱더 커만 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무게, 그로 하여 나날이 늘어만 가는 행복의 무게를 느낄것이다.

리경순

인민사랑의 정화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2월이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 한몸을 초탈처럼 태워오신 아버지장군님.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장군님 말기과가신 이 나라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겠다.

정녕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원수님의 그 말씀은 이민위천을 한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이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숭고한 의지가 어린 인민사랑의 정화이다.

지나온 나날에 공화국인민들은 원수님의 그 숭고한 인민사랑을 온넋으로 체험하였다. 민족대국상의 나날 누구

보다도 상실의 아픔이 크시던 만 추위에 떠는 인민들을 보시면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시며 세상에 없는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신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장군님의 사랑어린 물고기를 눈물속에 받아안는 인민들을 보시며 수산부문에 대한 정력적인 령도로 황금해의 새 력사도 펼쳐주시고 집집마다 사회주의바다향기가 풍기도록 해주시였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사시는분,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계단도 몸소 오르내리시고 과학자살림집주변에 남새밭과 온실까지 꾸리도록 가르쳐주시고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에 가시여서는 건물벽에 붙일 타일들의 색깔과 실내물놀이장의 수조깊이까지 일일이 헤아려주시는 원수님이시다.

원수님 아니시라면 아이들이 넘어져 상할세라 실내물놀이장과 탈의실사이의 복도바닥에 폼보물주단을 깔아주자는 사랑의 발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며 복도창문의 틈새에서 랭기가 들어와 원아들이 추워할수 있다는것까지 누가 생각하고 대책을 취해줄수 있겠는가.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같은 회한한 살림집들이 솟아나고 연풍과학자휴양소가 멋진 자재를 드러냈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 계시고 이 땅에 그늘진 운명은 없고 인민의 세상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굳건한것이다.

시련이 겹쳐들어도 인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 불가능도 현실로 만드시는 그이의 손길아래 이르는 곳마다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선경들이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누구나 그 회한한 창조물들앞에서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될 눈부신 래일을 그려보고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그리움의 꽃바다, 흠모의 꽃바다

◆ 제 19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고 ◆



위인칭송의 꽃을 보며

제19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니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험한 길을 걸었던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눈곱이 젖어 드는것을 어쩔수 없다. 활짝 핀 붉은 꽃, 심장모양의 푸른 큰 잎사귀, 보면 볼수록 김정일화는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꽃중의 왕이다.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우리 장군님

의 업적은 김정일화와 더불어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것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시장동 김준국

지금 평양에서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9차 김정일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한평생 애국애민헌신의 길에 계시며 시대와 겨레 앞에 크나큰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영생축원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축전장으로 굽어쳐호르르다.

열아홉번째의 뜻깊은 년년을 새기며 펼쳐진 이번 축전에는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을 비롯하여 80여개의 기관, 기업소들과 개별적인 각계층 근로자들이 성의를 다해

재배한 꽃들과 해외동포들, 주조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과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개별적인사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의 지성이 어린 수많은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어 꽃바다를 이루고있다.

김정일화들과 갖가지 진귀한 화초들로 특색있게 장식된 축전장에는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이 모셔져있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로 꽃바구니를 형상하여 인

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경모하는 인민들의 마음을 담은 외무성전시대대 김정일화로 조선로동당 기발과 최고사령관기를 형상하여 군력강화에 쌓으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조국수호의 전초선을 지키는 인민군장병들의 결사의지를 그대로 형상한 인민무력부전시대, 《절절한 그리움》,

《불타는 애국충정》이라는 글발과 함께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사랑과 헌신의 장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천지개벽된 이 땅의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담고있는 대외경제성과 통라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펼친 전시대들...

축전장에서 류달리 사 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전시대였다.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 정일봉과 대협꽃바

구니를 형상한 전시대는 《영생》, 《축일》이라는 글발과 함께 700여상의 김정일화로 하나의 큰 김정일화를 형상하여 참관자들로 하여금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성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하고있다.

축전장에는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존엄 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의 날을 앞당기려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

의 애국애족의 의지와 지향이 차넘치고있었다.

국제고통련 제1부위원장 김철성, 국제고통련잡지 《통일》주필 안향진, 우즈베키스탄고통련 위원장 주영일, 우즈베키스탄고통련 부위원장 고대춘, 국제고통련 신문 《통일》주필 석미란, 우즈베키스탄고통련 녀성회장 오솔매 동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있는 해외동포들과 재조선인총련합회와 재조선공민중앙협회의 지성이 어린 태양의 꽃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이역만리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경

모의 정을 안고 사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아울러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따르는 애국충정의 열의도 느낄수 있었다.

참으로 김정일화축전장은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행운과 더불어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할 인민들의 고결한 충정의 의지가 뜨겁게 분출하는 그리움의 화원, 흠모의 화원, 맹세의 화원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사람들은 흔히 꽃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모양과 색깔, 향기를 두고 논한다. 나는 거기에 한가지를 더 보태려고 한다. 꽃이 말한다고.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많은 해외동포들이 절세의 위인이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김정일화를 정성껏 키우고있으며 해마다 평양에서 성대히 열리는 김정일화축전장으로 보내오고있다. 그 한송이한송이의 꽃들에는 얼마나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얼마전 제 19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은 나는 심장모양의 푸른 잎사귀우에 붉은 꽃송이를 드리운 한상의 김정일화 앞에서 쉬이 자리를 뜰수 없었다.

해설원의 이야기가 귀전을 울렸다.

《이 꽃을 키운 사람은 80고령의 해외동포입니다. 그는 비록 년로한 몸이지만 해마다 김정일화를 키워서 조국에 보내오군 한답니다.》

김정일화는 특이한 생육조건으로 하여 품이 많이 드는 꽃이다. 그런 꽃을 고령의 해외동포가 키웠다고 하니 생각이 깊

어졌다.

... 그는 오래전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을 흠모해왔다고 한다. 더우기 아버지수령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장군님께서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의 생일상을 차려주신 은정에 크게 감동되었다. 조국과 김정일화를 정성껏 키우고있으며 해마다 평양에서 사는 그에게 있어서

꽃의 속삭임을 들으며

장군님은 곧 어머니조국이였다. 지난 시기 여러 차례에 걸치는 방문을 통해 날로 변모되는 공화국의 모습을 보면서, 《조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보면서 그는 그것을 철리로 새겼다.

해외동포는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을 김정일화에 담아 정성껏 키웠다.

그는 공화국의 신문, 화보를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하시는 영상을 우려며 그이는 담력과 배짱, 인품과 령도도 장군님과 똑 같으신 위인이시라고 마음속으로 웨치였다.

절세위인을 대를 이어

모신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에 넘쳐 그는 김정일화재배에 심신을 바쳐갔다. 화분흙에 필요한 부엽토와 니란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하였고 잠에 들었다가도 소스라치듯 깨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해비침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화분들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기를 하루에도 그 몇번.

그 지성 어린 마음으로 마침내 탐스럽

게 맺힌 꽃봉오리를 바라보는 그의 주름진 얼굴에 흘러내렸다는 뜨거운 눈물.

아, 김정일화!... 이러한 사연은 그 해외동포 한사람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중국과 로씨야 등 세계의 곳곳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이 자기들이 정성껏 키운 김정일화를 조국에 보내오고있다.

나는 감동깊은 눈길로 아름다운 김정일화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금시 꽃의 속삭임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장군님에 대한 온 겨레의 마음을 모르는 그리움이 나를 키웠답니다.)

류원규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 강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헌정없는 그리움과 순결한 충정의 대하가 뜨겁게 끓어 치고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 강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헌정없는 그리움과 순결한 충정의 대하가 뜨겁게 끓어 치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천고의 밀림속에

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김일성민족의 룡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백두산밀영에 차넘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무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공로자들, 조선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연설들이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명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열화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맥박치는 연설들은 전체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이어 민족대통운이 열린 력사의 2월을 맞이하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차넘치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필승의 기상과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의 힘찬 맥동인양 출기차게 터져오른 축포들이 정일봉의 상공에 장엄한 불노을을 펼쳐놓았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위대한 광명성의 탄생을 한없는 기쁨속에 맞이한 항일전의 선렬들의 격정넘친 환호성이런듯 정일봉을 우러러 터쳐올리는 참가자들의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백두대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천하제일설경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백두의 대업의 필승불패성을 구가하며 련이어 터져오르는 황홀한 불보라를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의 숨결로 맥박치고 백두산줄기처럼 뿌리깊은 혁명신념으로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투쟁열의가 용암처럼 끓어 번지였다.

백두산밀영결의대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2월의 봄》음악회

미국의 뉴욕에서 진행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주최하고 우록교향악단이 출연한 《2월의 봄》음악회가 7일 저녁 뉴욕 코프만음악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각지에서 사는 각계층 재미동포들과 미국인들, 뉴욕주재 로씨야, 중국, 벨라루시, 우즈베키

스탄,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가족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관람석은 우록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조선음악을 감상하려고 모여온 관중들로 가득찼다.

악단의 단장인 리준무의 지휘밑에 재미동포예술인들과 미국인음악가들이 교향곡 《선군장정의 길》을

힘있고 우렁차게 연주하여 백절불굴의 조선의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어 관현악 《장군님께 영광을》, 관현악 《청산별곡》, 관현악 《통일무지개》, 남성독창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비롯한 우리 나라 음악들과 외국곡들이 훌륭히 연주되었다.

공연마감순서로 진행

된 관현악 《발걸음》은 음악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발걸음》의 씩씩하고 힘있는 선율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흥분하여 노래박자에 맞추어 호응하며 온 극장안을 들뜨게 하였다.

공연기간 열광적인 박수소리는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본사기자



물우에 펼쳐진 그리움의 세계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진행

그리움은 끝이 없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굽이치는 속에 서장 《그리움은 끝이 없네》로 시작된 모범출연은 첫시작부터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 잡았다.

2인수중체조무용 《백두의 말발굽소리》, 1인수중체조무용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자유결합수중체조무용 《우리 앞날 밝다》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나라와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역센 기상을 우아한 물동과 조형, 여

리까지 대형변화로 감명 깊게 펼쳐보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해물체육단의 김진경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194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수중체조무용은 헤엄을 치면서 하는 체육적인 성격과 예술-무용적인 동작이 결합된 체조무용종류이다. 물속에서 갖가지 우아한 동작을 펼쳐보이는 수중체조무용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70여 개 나라들에서 널리 보급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1988년에 수중체조무용협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수산성체육단, 룡해운성체육단, 조선체육대학, 창광원청소년체육학교 등 체육단 및 체육학교들이 망라되

어있다. 해마다 공화국에서는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보천보해물상체육경기대회, 전승집체체육경기대회, 전국청소년체육학교경기, 공화국선수권대회 등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수려하게 나타나고있다. 지난 시기 공화국의 수중체조무용선수들은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역사는 비록 길지 않아도 공화국의 수중체조무용선수들은 2012년 제9차 아시아수영선수권경기대

회에서 제노라고 하는 일본선수들을 이겨 과문을 일으켰다.

공화국의 수중체조무용이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데는 수중체조무용발전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몸소 수중체조무용협회를 조직해주시고 수중체조무용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 주신 장군님이시다.

리성순 수중체조무용협회 서기장은 《우리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더 높은 경기성과로 보답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김철호



오는 19일은 우리 겨레의 민속명절인 설명절이다. 설명절날의 전통적인 음식 몇가지를 소개한다.

◆떡국
흰쌀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고기장국에 넣고 끓인것이 설음식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떡국이다. 떡을 버들잎모양으로 썰어 찬물에 행구어낸 다

음 펄펄 끓는 장국에 넣으면 잠간사이에 익어서 우로 둥둥 떠오른다. 그것을 그릇에 떠내어 국물과 함께 후후 불며 먹을 때면 새삼스럽게 또 한해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떡국은 옛날부터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되어왔으며 사람들은 한해를 넘겨 나이

를 한살 더 먹었다는 뜻에서 떡국을 먹는다.》는 말로 형상적으로 나타냈다.

설음식 몇가지

◆약과
약과는 밀가루를 꿀, 기름, 술로 반죽하여 납작하고 네모나게 썬 다음 기름에 튀겨내고 다시 꿀에 재웠다가 잣가루나 계

피가루, 깨 등을 곁에 입혀서 만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과자이다. 약과는 꿀과 기름이 폭 배인것으로서 영양가가 높을뿐 아니라 달고 바삭바삭하여 먹기 좋았다.

◆수정과
수정과는 물에 담가서 불균 꽃감을 생강과 계피나무를 끓여서 우린 물에 타고 그우에 잣알을

봄명절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

2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은 어버이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이 그대로 꽃이 되어 아름다운 꽃결절을 펼쳐놓았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며 삼가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중에는 낮은 사람의 얼굴도 눈에 띄었다.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회원 정규진선생이었다. 그는 온 가족과 함께 만수대언덕에 올랐던 것이다.

1989년 11월 공화국의 품에 안긴 정규진선생으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한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고 자선학교 교장, 화남화학주식회사의 리사 등 정계, 실업계, 교육계, 체육계에 몸담으면서 사회의 부패상을 폐부로 절감한 사람이었다.

《제가 북으로 온것은 태양의 빛을 찾아서였습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에게 국가수훈의 영예와 많은 상금과 승용차, 고급살림집도 안겨주시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는 외국어대학교에 갔을 때였다고 한다. 한곳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있는것을 보고 그리로 다가간 그의 눈에 붉은 마지크로 《백두광명성 만세!》라고 쓴 대자보(벽보)가 안겨왔다. 거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세계재난구조력사상 레를 찾아볼수 없는 막대한 량의 쌀과 세멘트, 천과 의약품을 긴급히 보내주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을 조직지휘하신 내용이 씩여 있었다. 그날밤 그는 흥분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다고 한다.

(진정 내가 안겨살아야 할 품은 어디인가.)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읽으면서 사상리론의 천재, 탁월한 령도자이신 그이시야말로 7천만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는 민족의 어버이심을 확신한 그는 태양의 품을 찾아가 결심을 내리었다.

《참된 삶의 길을 찾아온 저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분에 넘치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 주시었습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에게 국가수훈의 영예와 많은 상금과 승용차, 고급살림집도 안겨주시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해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 그가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회원으로 일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 주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해 응당 할 일을 한 그에게 은정어린 감사도 보내주시고 고급피아노도 보내주시분도, 남조선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의 건강상태도 염려하시어 유능한 의료인들을 불러주어 완치시키도록 몸소 치료대책까지 세워 주신분도 어버이장군님이 시였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지금 그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박사, 교수로 성장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딸 통일이는 평양산원의사로 일하고있고 아들 조국이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배움의 나라를 활짝 꽃피우고있다.

하기에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르며 정규진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에게 가장 값높은 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온 가정의 마음을 담아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내 나이 비록 일흔이지만 로당익장하여 여생을 조국통일성업에 강그리 바치겠습니다.》

본사기자 김춘경



떡위 만든 우리 민족청량음료의 한가지이다. 수정과는 피를 맑게 하고 피로를 푸는데 효과가 크며 술을 마신 후에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것으로 하여 설명절때에 많이 썼다. 추운 때이지만 따뜻한 방에 앉아 수정과를 마시면 시원하고 맛이 독특한것이 이례 없었다.

본사기자